

| 노사정대표자회의\_ 4개 의제별위원회 |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회의 개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 등  
4개 의제 집중 논의”

설문수 전문위원





## 1. 대표자회의 이후, 각 의제별위원회 준비 내용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4.23.)에서 대표자회의 산하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발족 준비를 위해 2차례의 준비회의(4.3, 4.23)와 3차례의 준비위원회(5.11, 5.18, 7.12)를 거쳐 2018. 7. 17(화)에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위원회 명칭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정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를 준비 위원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최종 명칭은 1차 전체회의 시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다. 논의과제는 산업안전 예방 및 감독체계 개편방안 등 6개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제안되었고 위원회 발족 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2. 제1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지난 7월 17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체회의에는 13명의 참석대상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 위원회 구성, 논의과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 되었다.

위원회 명칭은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확정하고 약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공석중인 노동계 위원(1명)을 민주노총이 복귀할 때까지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맡기로 하였다. 이로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 위원 각각 2명,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 2명,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2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추천 공익위원 1명, 간사 1명 등 총 13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현황 : 덧붙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논의과제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4개의 단기과제(①장시간 노동근절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 ②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방안, ③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 방안, ④감정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와 2개의 중장기 과제(①산업안전 예방 감독 및 조직체계 개편 방안, ②산재보상보험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과제로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논의결과 다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제안된 단기 및 중장기 과제(안)에 대해 과제별 제안자 또는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토의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 3. 발족 의의 및 목표, 운영 방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발족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 교통사고, 자살 등 3대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근로자, 경영자 및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산업재해예방 정책 및 기능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직책
위원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위원	노동계	이경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조기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장
	경영계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공익 위원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전형배	강원대학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수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설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